1000마리의 두루미, 순천만을 수놓다

올 1005마리 관찰…역대 최대
생태환경 바뀌어 지속증가 예상
내년 3월까지 새벽탐조 운영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떼. 지난 25일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966마리, 재두루미 35마리, 검은목두루미 4마리 등 두루미류 3종 총 1005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 제공〉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류가 1000마리 이상으로 확인됐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흑두루미 966마리를 비롯해 재두루미 35마리, 검은목두루미 4마리 등 두루미류 3종에 총 1005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겨울(2014년 1월 15일)에 최대치를 기록한 두루미류 871마리와 비교해 20여일 빨리 134마리 가량 증가한 것이다. 순천시는 최근 한파로 천수만 등지에서 월동하던 두루미류가 순천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루미류는 매년 10월에 찾아와 6개월여간 월동하고 이듬해 3월말께 떠나는 겨울 철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 1996년 11월에 70여마리가 첫 관찰된 이래 1999년 80여마리, 2004년 202마리, 2009년 350마리, 2012년 693마리, 2013년 871마리에 이어 2014년 1005마리가 도래하면서 1996년과 비교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이기섭 박사는 "국내 흑두루미 서식지 손실과 파편화로 점차 매년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 수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과거 낙동강 지류를 따라 일본으로 이동하던 흑두루미의 이동경로가 최근 서해안으로 바뀌면서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순천만의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만보전과 관계자는 "올해는 평년에 비해 흑두루미 이동시기가 빨라져 월동 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에 노력한 것이 개체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순천만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매,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잿빛개구리매, 큰고니,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 조류가 월동하고 있어 겨울철 탐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내년 3월까지 매주 일요일 새벽에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 통제구역내 흑두루미 잠자리와 먹이터를 탐방하는 '흑두루미 새벽탐조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 맞춤형 일자리사업 그랜드슬램

직업훈련 등 3개 S등급 달성
민원만족·개인정보보호 1위

전남도는 27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에서 3개 사업이 최고등급인 'S'를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감사원장으로부터 민원처리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는 17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됐다.

전남도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에서 전체 6개사업 중 'S'등급 3개, 'A'등급 1개, 'B'등급 2개로 평가받아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거뒀다.

'산업수요에 맞춘 훈련계획 수립', '훈련생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집중 연마', '기업 관리자와 훈련생간 멘토-멘티를 통한 경험 전수 및 소통' 등을 통해 성과 제고를 위한 공통 목표를 향해 매진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S'등급으로 평가받은 전라남도 주관 3개 사업은 광양만권 산업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용접), 전남 동부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기계정비), 농식품 생물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다.

시·군 주관 사업 중에서는 광양시의 광양만권 산업운송장비 인력양성 사업, 나주시의 나주시 혁신도시권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이 'S'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9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방식으로 이뤄진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전국 평균 점수(59.77점)보다 8.02점 높은 67.7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 공기업 등 4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도 전남도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원시 지리산 케이블카, 운봉 허브밸리~바래봉 2.1km로 노선 변경 추진

반달곰 보호구역 등 회피

■남원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구간

남원시가 노선을 변경해 지리산 삭도(케이블카)를 추진한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여 명의 삭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노선변경 및 산악철도 시범 도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당초 산내면 반선~반야봉(중봉)까지 6.6㎞ 케이블카 설치사업(사업비 예상 421억원)을 추진했으나, 운봉 허브밸리에서 바래봉까지 2.1㎞(사업비 예상 250억원)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 6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로 삭도가이드라인 보완을 위해 지난 10월 케이블카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노선을 최종 변경키로 결정했다. 환경부 공원위원회는 환경 훼손과 불확실한 경제성 등을 이유로 4개 지자체(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함양, 산청)의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바 있다.

시는 변경된 노선의 장점으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을 회피할 수 있어 환경부 삭도가이드라인 충족이 가능하며 ▲반선~중봉 구간보다 짧아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환경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하부 정류장이 운봉 허브밸리 지역으로 봄(바래봉 철쭉제), 여름(허브축제), 겨울(눈꽃축제) 등 사계절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근 다른 지리산권 지자체와 달리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유치를 위해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리산 케이블카의 사업지를 산내면에서 운봉읍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사업지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에 반드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및 '산악철도' 시범도입 사업을 유치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정치권과 중앙부처, 전북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옻독 제거기술 개발

성분분석·법제방법 특허출원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63건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이 중 16개 기술을 20개 업체에 기술 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기업자문을 통한 사업화 지원기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장수요 기술개발 보급 일환으로 추진해온 '옻나무의 옻독 성분 분석연구 및 제거 법제 방법'을 개발해 영세 임업 중소기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지난 8월 곡성 참옻유통센터가 옻 알레르기가 오르지 않는 참옻진액 등의 제품을 개발, 옻독성분 '우루시올'(urushiol, 휘발성 페놀화합물로써 피부염 유발물질)의 성분 검사 요청을 받으면서 공동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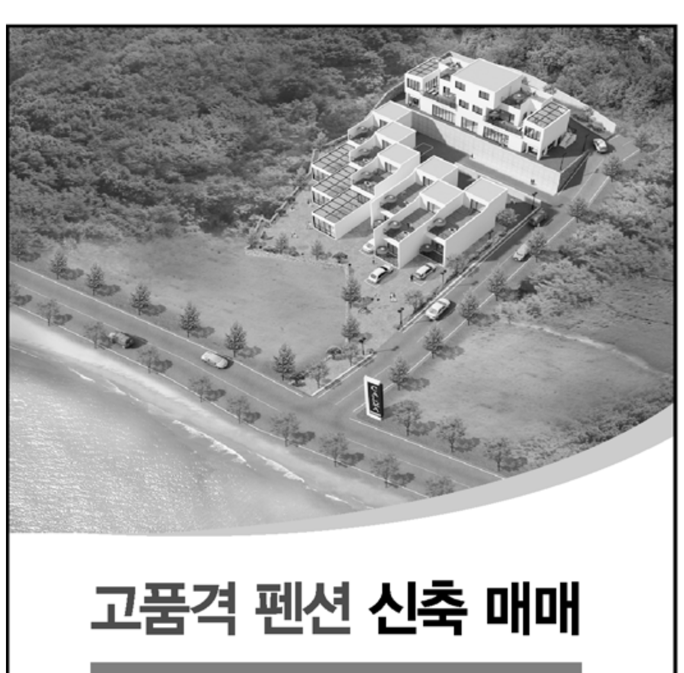
연구 결과 '우루시올' 시험법 및 기준규격에 따라 옻나무에서 '우루시올' 성분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제거하는 법제 방법을 개발, 현재 특허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옻나무는 동의보감에 "마른 옻이 어혈과 여인의 경맥불통을 풀어주는 외에도 장을 잘 통하게 하고 피로를 다스린다"고 적혀 있는 등 효능을 인정받아 옻닭이나 옻오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옻은 잘못하면 강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옻의 강한 독성을 없애주는 기술 개발이 요구돼왔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박화식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임업'이 되도록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돌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가, 야적장 주기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